

‘2024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 서울서 개막...15개국 100명 참가

- 재외동포청, 입양동포와 모국간 연결 강화 공동발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논의
- 이기철 청장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상 알리는데 입양동포도 함께 하길”

- 모국과 해외 입양동포간 유대감 형성과 연대를 강화하는 자리인 ‘2024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가 21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막을 올렸다.
- ‘연결의 힘: 더 밝은 미래를 향해’라는 주제 아래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이 주최한 이 대회에는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호주 등 15개국에서 입양동포와 가족(동반자) 등 100명이 참가했다.
- 이기철 청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국민은 여러분의 아픔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한인임을 잊지 않고 고국을 찾아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많은 입양동포가 거주국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으셨는지, 얼마나 큰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셨는지. 이렇게 어려운 환경하에서도 정체성을 유지하시고 거주국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거나 모범적인 시민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 이어 조국은 입양동포 여러분을 잊지 않고 여러분을 ‘재외동포’로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외국인으로서 한국의 핏줄을 가진 사람으로 분류하므로 여러분은 재외동포이고 재외동포청의 보호, 지원 대상”이라고 밝혔다.
- 그러면서 재외동포청은 입양동포들의 실질적인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세계 각국 입양동포의 모국과 유대감을 제고하고, 입양동포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이번 대회와 같은 입양인 동포를 위한 모임을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 이 청장은 “여러분의 모국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나라라는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란다”며 재외동포청의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상 알리기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했다.
- 외국 교과서에 한국의 정치 경제 발전상을 수록하는 이 프로젝트는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과 주류사회 진출 지원이라는 재외동포 정책의 두 가지 핵심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소중한 콘텐츠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 이 청장은 “이 프로젝트는 여러분과 동포사회의 역할이 중요하기에 동참을 요청한다”며 “조국은 항상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국 대한민국은 착한 나라 중 가장 훌륭한 나라”임을 잊지말라고 강조했다.

□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의 축사와 참가자를 대표하여 안톤 클레슨(스웨덴, 대학생)이 답사를 했다.

- 정 원장은 “정부가 내년 7월 시행될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과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맞춰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관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입양체계 구축에 나서면서 국내·외 입양체계가 큰 변화를 맞게 된다”며 “앞으로도 아동권리보장원은 모든 입양 관련 기록의 관리와 입양정보 공개 업무에 효과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 안톤 클레슨은 “이번 대회에 참가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특히 스웨덴에 입양된 어머니의 아들이자 내 안에 한국인과의 연결성이 있다는 사실에 감회가 새롭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이번 대회에 참가한 모든 사람이 여기 이 자리에 함께한 여정은 각각 다르겠지만, 한국과의 연결과 그 발전적인 관계의 희망을 기대하는 그 소망은 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 참가자들은 개회식 전, ‘공감콘서트’에 참여했고, 22일부터 법무부, 아동권리보장원 등 유관기관이 마련하는 재외동포 비지(F-4) 취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친족찾기와 유전자 검사 등에 동참한다.

- 또 재외동포청이 시행하는 입양동포를 위한 각종 사업 등에 대한 정보를 청취(인포세션) 한다.
- 입양동포들은 한국민속촌 등을 방문해 ‘한국의 역사문화’를 체험하고, 삼성이노베이션 뮤지엄과 코엑스 등을 찾아 ‘모국의 발전상’을 돌아보는 시간도 가진다.
- 특히 국가별, 지역별 참가자들 간 그룹토의 시간을 마련해 입양동포와 모국이 공동 발전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논의하고, 작년 대회에서 채택한 ‘참가자 선언문’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참가자들의 자발적인 노력 등을 담은 ‘이행계획’도 세울 예정이다.

붙임 1. 「2023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주요일정(안) 1부.

2. 「2024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참가자 단체 사진 1부.(별첨) 끝.

담당 부서	재외동포청 차세대동포인권과	책임자	과 장	김채영	032-585-3213
		담당자	사무관	김성준	032-585-3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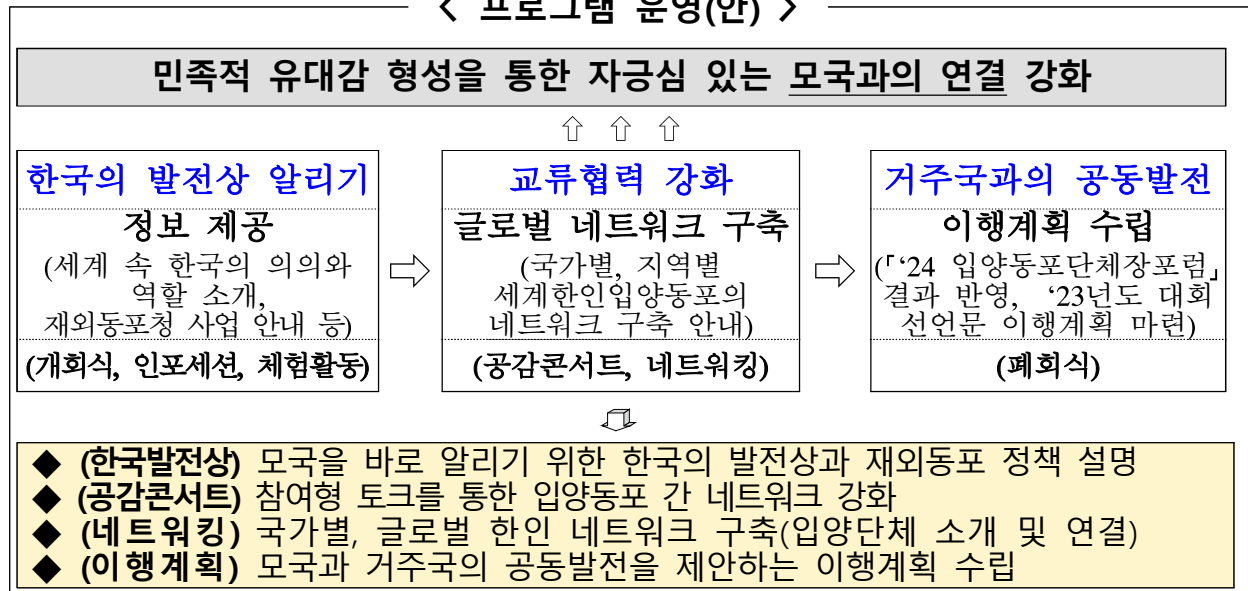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I. 대회개요

- 기 간: 2024. 5. 21.(화) - 24.(금) <3박 4일>
- 장 소: 서울 (콘래드 호텔)
- 인 원: 100명 (15개국)
- 주요 프로그램: 개·폐회식, 공감콘서트, 인포세션, 역사문화체험, 지역별그룹토의 등

< 프로그램 운영(안) >



II. 주요일정(안)

시간	5.21.(화)	5.22.(수)	5.23.(목)	5.24.(목)
	<공식행사>			
09:00-10:00	입국 및 등록	산업시찰 (삼성모빌리티 뮤지엄)	인포세션	사전프로그램
10:00-11:00				폐회식
11:00-12:00				환송 오찬
12:00-13:00		점심	점심	이동 및 해산
13:00-14:00		한국 역사·문화체험 (한국민속촌, 코엑스)	지역별 그룹토의	
14:00-15:00				
15:00-16:00				
16:00-17:00				
17:00-18:00	공감콘서트	저녁	입양동포 단체 네트워킹	
18:00-19:00	개회식			
19:00-20:00	환영 만찬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의거 변동할 수 있음